

#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도시외교의 미래, 상하이



도시외교 시리즈 ③

#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도시외교의 미래, 상하이

발행인        김봉현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도시외교의 미래, 상하이

## CONTENTS

요약 .....	2
Ⅰ 서론 .....	3
Ⅱ 상하이의 국제화 .....	5
Ⅲ 상하이와 일대일로 .....	10
Ⅳ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	15
Ⅴ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 .....	20
Ⅵ 결론 및 시사점 .....	22

# 상하이의 도시외교

## 중국 도시외교의 미래, 상하이

### 요약

상하이시는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현대중국의 중심지이다.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도시인 상하이는 중국을 넘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열려있는 도시이며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는 도시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피력한 이후 상하이에게 있어 도시외교는 중국과 상하이의 미래를 움직이는 커다란 목표가 되었다.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개되며, 역할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크게 우호자매도시 관계수립, 경제·통상 관계수립, 국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증진, 접경지역과 중국지방정부 간의 국경협력 도모의 양태로 나타난다.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실크로드 정책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천명으로 인해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해상과 국제화 전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강자가 되었지만, 인접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향후 전략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외교정책과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그 시작으로서 좋은 대외 이미지 혹은 인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대일로의 중요한 비전은 아시아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함을 또한 시사한다.

■ **주제어** 상하이, 중국, 도시외교, 일대일로, 과학기술혁신, 이미지, 소프트파워

## I. 서론

상하이 시(上海市)는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현대 중국의 산업, 상업, 금융, 통신 그리고 문화를 이끄는 경제적 중심지이다. ‘중국 근대 100년 역사를 보려면 상하이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이룩했던 도시이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대륙에 한적한 어촌이었던 이 도시가 1840년 난징조약을 계기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열강들의 강압에 의하여 국제화가 시작되었고, 조계지(租界地 Concessions in China)가 설치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 뉴욕과 런던을 잇는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고 ‘동쪽의 파리(Paris of the East)’, ‘동양의 여왕(Queen of the East)’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1941년 말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게 선전 포고를 하여 상하이 조계를 점령하였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조계를 왕징웨이(汪精衛) 정권에 반납하게 되면서 100년간 유지되었던 조계지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상하이는 중화민국(현 대만)이 탈환하여 관할하게 되었지만 1949년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정부를 패배시킨 후 상하이 전체를 관할하게 되면서 중국공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이어진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금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하이 국제회의센터 건립(1999년 8월),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2001년),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설립(2008년), 상하이 엑스포(2010년) 개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하이의 국제화의 속도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큰 도시로 자리 잡았다(Chen and Orum 2009).

중국의 도시외교는 세계화 추세와 개혁개방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다(신종호 2017). 2012년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지도자로 오른 이후 중국은 또 한차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시진핑 지도부는 다섯 가지 핵심정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중국의 도시화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과 목표 및 전략 관련 제도·정책을 전면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신형도시화규획이고, 둘째는 중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경제의 활성화, 셋째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 넷째는 대중 창업과 만인혁신에 기반을 둔 쌍창(双创)경제, 마지막은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재현을 통하여 정치외교·경제·문화·혁신·지역발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들 수 있다(홍성범 2016, 58). 2014년 5월 14일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우호협회 6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도시외교'(城市外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李小林, 2016: 54).

그 후로 중국 내에서 도시외교의 주체, 목적, 내용, 형식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신종호 2017:71),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외관계는 철저히 중앙정부의 영역이며 이러한 특성에는 변함이 없다(조형진 2019:34-35). 상하이의 도시외교 또한 중국의 도시외교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현재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선봉적 역할론이 강조되었다(周士新 2018:43). 따라서 본 연구는 상하이의 도시외교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인 '국제화'와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상하이의 국제화

상하이의 국제화의 시작은 서방세력이 아편전쟁 이후 상하이를 국제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상하이는 송나라 당시 소규모의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난징조약 이후 1843년 11월 개항 이후로 대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고(홍성범 2016), 이후 중국의 무역·산업·금융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발전되기 시작했다. 개항 당시 서방국가 내에서 차, 비단과 기타 중국 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양쯔강(揚子江) 계곡의 풍요롭고 광대한 배후지로 인해 국제 무역항구의 조건을 갖춘 상하이는 서방열강들과 중국 사이의 무역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였고, 수출입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국제무역 항구로 부상하게 되었다(Cheng 2012).<sup>1)</sup> 이후 상하이는 곧 기존 중국 최대의 무역조약 항구였던 광저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1870년대까지 중국의 대외 무역의 60% 이상이 상하이에서 이루어졌으며(Luo 1932:90), 1920년 들어서 상하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14개의 무역항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다(Cheng 2012). 1949년 이전에는 상하이의 수출입 규모가 중국의 전체 무역에 50% 이상을 차지했다(張仲礼 1991: 87-88; Cheng 1956: 23). 1930년대 초, 중국의 제조회사 중 약 절반(2,435개 중 1,200개)이 상하이에 위치했고, 중국 산업 노동자의 43%를 고용하고 전체 산업제품의 51%를 제조했다(Cheng 2012). 상하이의 경제호황과 도시인구 증가를 통해 금융 관련(은행, 보험사, 금융신탁, 주식시장, 상품시장) 기관들과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Cheng 2012). 상하이는 1936년 중국은행의 절반가량(47.8%)이 상하이에 자본금, 지폐, 예금 및 은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洪葭管 1990: 328-9), 극동지방의 유일한 금시장이므로 당시 런던과 뉴욕에는 못 미쳤지만, 일본, 프랑스, 인도보다는 훨씬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洪葭管 1989: 21-22). 상하이의 전반적인 팽창 이후 인구는 폭발적으로 유입되었으며, 1840년대 초에 20만 명

1) 양쯔강의 중국 본토 명칭은 장강(长江)임.

이었던 인구가 1900년대 초 100만 명으로, 1949년에는 5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張仲禮 1991: 53-55). 상하이의 초창기 국제화는 중국의 자의적인 개혁이 아니었지만, 개방을 통한 국제화로 인하여 상하이가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이 점령한 이후 국제화가 한차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49년 중국 지도부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수출에 가한 경제적 금수 조치에 맞서 의도적으로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전체를 국제화의 흐름을 막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었다(Cheng 2012). 중국 공산당의 조치로 인하여 1949년에 상하이에 주재했던 외국기업은 홍콩으로 이전했고, 이후 떠나지 못한 외국기업들은 중국정부가 부과한 부당하게 높은 세금과 수많은 제약을 통해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千家駒 1983). 중국정부는 전국적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고, 소련 및 공산권 그리고 홍콩과 매우 제한된 교역을 제외하고 상하이의 경제는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중국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Cheng 2012). 중국인민은행은 금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을 모두 금지하면서 상하이의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이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경제적인 성장 측면에서 상당히 뒤처지게 되었다(Cheng 2012). 중국에서 상하이의 경제적 우월성은 과잉생산과 과소 투자로 인하여 중국의 기타 성(省)들에 비해 빠르게 뒤처지기 시작했다(Cheng 2012). 1960년대와 1970년대 상하이는 GNP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약 40% 높게 유지했으나, 1980년대에는 중국 평균보다 12.6% 낮았다(鄒東濤 2008). 중국 공산당 집권 초기의 통제를 통하여, 상하이에게 국제화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었으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국제사회와의 연결에 더욱 갈급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하이는 1978년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재개되면서 상하이의 세계화가 재개되었으며, 경제침체와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상하이 인민들과 지방정부가 기존에 적용되었던 엄격한 통제를 해제해 줄 것과 국제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을 중국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Cheng 201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상하이 시장이었던 주룽지(朱鎔基)는 푸둥(浦東)지역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제안서를 중국 중앙정부에 정식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중국의 발전을 이끈 장강삼각주 지역 발전전략 즉 푸둥신구 발전

전략이 시작되었다(홍성범 2016). 황푸강(黃浦江)의 동쪽에 있는 522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개발하여 중국의 금융·상업·무역 및 과학기술의 핵심지역으로 만드는 큰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였다(홍성범 2016:57).

▶ 그림 1 상해푸둥신구지도 (Virtual Shanghai)



이후로 중국 개혁의 중심지는 상하이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하이 지도부와 인민들은 상하이의 세계화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에는 중국의 시장경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를 다시 재개하였으며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1992년 상하이의 증권거래소는 다시 문을 열었고, 더 많은 국영기업이나 사기업들이 상장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Cheng 2012). 상하이시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줄여 나갔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처로서 상하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Cheng 2012). 1992년 이후 상하이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미화로 1200억불에 상당하는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는 중국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의 23%에 달한다(Balfour 2007). 그 결과 중국 전체의 18%에 불과한 장강삼각주 지역은 중국 전체의 인구 36%, GDP 37%에 달하는 중국의 최대 경제 네트워크 지역으로 성장하였다(홍성범 2016:57). 결국, 상하이의 재세계화를 위한 시도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표 1 상해인구변화추이 (2008-2019) (CEIC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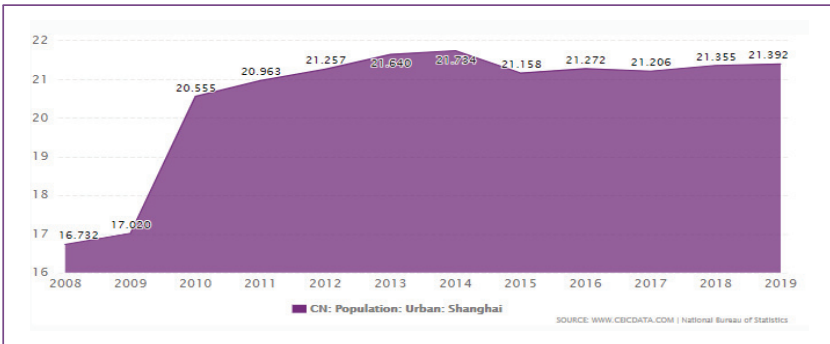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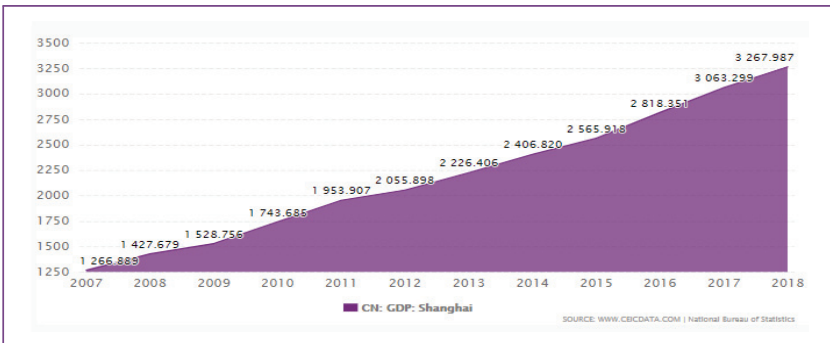


표 2 상해GDP변화추이 (2008-2019) (CEIC Data)



명실공히 중국의 경제수도의 역할을 맡아왔던 상하이는 시진핑 시대가 전개 되었던 2012년부터 새로운 역할론과 중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 점에 서 있다. 2014년 상하이를 시찰한 시진핑은 이후 상하이를 향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 (全球科技创新中心)라는 목표를 새로 제시하였다(홍성범 2016).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의 목표는 “시장 개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문화 교류 강화 및 혁신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다(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 2014년 6월,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 글로벌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위한 전문가포럼(上海建设全球科技创新中心专家研讨会)」을 개최하였고, 중국경제시보는 이 자리에서 본 센터가 전 세계 혁신활동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해야 하며, 세계의 혁신, 창의적 활동 그리고 창업 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2015년 5월 25일 상하이시 정부는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 성장계획으로 우선 2020년까지 센터의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혁신도시로서의 상하이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하였다(홍성범 2016:61). 상하이에 있어 국제화는 상하이 자체만의 생존이 아닌, 중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가장 중대한 과업임을 알 수 있고,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도시외교의 중요성은 상하이에겐 필수적인 전략 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상하이와 일대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한 도시외교의 중요성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다. 지난 40년간 상해를 포함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팽창과 발전을 통해 중국이 부상하였고, 중국의 내부이주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Klaus and Curtis 2020). 또한,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외교를 활용해 왔다. 중국 도시들이 맺은 우호자매도시들의 숫자는 영국의 도시들이 맺은 숫자를 훨씬 능가했다(Acuto, Morissette, Chan and Leffel 2016). 중국은 도시외교를 통하여 공공외교를 실행하였고, 차후 양자관계의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Klaus and Curtis 2020). 중국 중앙정부는 도시별 네트워크 참여와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관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외교적 노력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Acuto, Morissette, Chan and Leffel 2016). 중국의 도시간의 외교는 중국 중앙정부와 연결고리를 맺고 전략적으로 수행되고, 국가정치와 국제관계 맥락과 크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중국 중앙정부와 도시간의 유대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Klaus and Curtis 2020).

중국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화두는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다. 미국은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해 왔으며, 경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의 일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시작하였다(조영삼·최낙섭·김양평·김단비 2016).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을 대응하기 위해서 발표한 전략이다(신성원 2014). 일대일로 전략은 21세기 이내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인 70개의 파트너 국가에 도달하는 6개의 육지와 육지기반의 실크로드인 경제벨트 계획과 해상기반의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중국의 전략이다(Klaus and Curtis 2020). 중국학계에서는 일대일로에 참석하는 국가를 연선국가라고 칭하며 총 65개에 달하며, 동아시아(몽골), ASEAN(10개국), 서아시아(18개국), 남아시아(8개국), 중아시아(5개국), 독립국가연합(CIS 7개국)

그리고 중동유럽(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조영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2016). 신(新)실크로드 정책의 목표는 교통연계망 구축, 무역·투자활성화, 금융분야 협력강화, 에너지 및 식량 확보, 마지막으로 민간교류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신성원 2015:7).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의 목적성을 반영한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조영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2016). 첫째는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의 상호연결이며, 둘째는 장벽제거를 통한 투자 및 무역원활화이며 실물투자 및 상품 무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이고, 넷째는 정책교류를 통한 정책 교류이고, 마지막으로 관광, 학술, 문화를 통한 문화 및 민간교류이다(조영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2016).

일대일로는 육상 3개 노선, 해상 2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 실크로드(一帶)는 1)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발트 해), 2)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 3)중국-동남아시아-인도양이고, 해상 실크로드(一路)는 중국연해항만-남중국해-인도양-유럽, 2)중국 연해 항만-남중국해-남태평양이다(조영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2016:14). 일대일로의 전략적 지역 내에서 전 세계 석유확인 매장량의 60%, 천연가스매장 71%가 매장 되어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와 자원 공급기지를 포함하고 있다(조영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2016:14). 중국 내 일대일로 거점 지역은 2개 핵심(신장, 푸젠), 18개의 성(省)(서북6성, 동북 3성, 서남 3성, 연해 5성, 충칭), 7개의 고지(시닝, 청두, 정저우, 우한, 창사, 난창, 허베이)와 15개의 항구(다렌, 톈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산야)와 2개 국제거점(상하이, 광저우)으로 이루어져 있다(조영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2016)

<그림 2> 참조

▶ 그림 2 일대일로계획지도 (國文庫 2017)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주요 이익은 지역안정성 강화, 중국의 에너지 안보 향상 그리고 유라시아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꼽을 수 있다(Wuthnow 2017). 중국 연구자들은 일대일로 전략이 유라시아 통합이 지역 간 무력충돌의 근본 요인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중국의 남서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수송로가 다양화 되어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Wuthnow 2017). 또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유라시아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 하는 두 가지 지정학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현명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Wuthnow 2017).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내부와 외부의 불안정과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다른 강대국들의 전략적 균형유지 노력으로 좌절 될 수 있다(Wuthnow 2017). 내부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과제는 신장 위구르 분리주의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따른 중국의 대응으로 드러난 중국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위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과제는 일대일로전략의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을 설득하는 문제이다. 중국

관측통은 미국, 일본,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일대일로 전략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며, 이에 따른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대응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Wuthnow 2017). 미국은 일대일로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AIIB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조영삼·최낙섭·김양평·김단비 2016). 미국의 이러한 반대의 이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창설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 인권, 반부패에 대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World Bank와 같은 기존 국제기구와 경쟁관계에 대한 우려에서도 나타났다(조영삼·최낙섭·김양평·김단비 2016). 일본은 일대일로 전략에 대하여 신중하고 유보적으로 대응하였고, 정치·안보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조영삼·최낙섭·김양평·김단비 2016).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최대한 미국의 편에 서있되 이해관계에 대한 면밀한 계산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응이 설 경우, 일본의 대응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인도에게 있어 일대일로는 기회이기 보다는 위기이며, 인도는 일대일로 정책의 투명성과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전략적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Baruah 2018).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즉 중국식 세계화에 대한 거부를 확실하게 표명하였다(최윤정 2020). 인도는 2017년 중국이 주최한 일대일로 포럼에 참가하지 않았고, 반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최윤정 2020). 파키스탄을 관통하는 경제회랑 프로젝트가 인도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참여거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8). 2018년 4월 열린 제 5차 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입장을 반복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열린 2차 포럼에 불참하였다(최윤정 2020).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서 상하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상하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 중요한 해상 거점이며, 국제거점이다. 상하이는 창장 삼각주 항구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수, 저장과 함께 국제 물류허브를 형성하고 있고, 일대일로 신 유라시아 경제벨트와 연결되는 내륙운송의 중심 지역이다(조영삼·최낙섭·김양평·김단비 2016:73). 또한 연선국가 40개 이상의 항구와 협력기구 논의를 통하여 향후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조영삼·최낙섭·김양평·김단비 2016:74), 같은 그룹에 속한 닝보/저우산항과 렌윈항의 향후

계획도 일부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하이시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건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육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도시들을 중국의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11일 상하이시 정부는 ‘일대일로 건설참여 행동방안’을 발표했고, 상하이의 일대일로 건설 참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행동방안은 총 7개 분야(무역투자편리화, 금융개방협력, 해운항공 등 교통연결확대, 과학기술혁신협력, 인문교류협력, 싱크탱크 건설, 정책적 지원 체제 강화)와 60개의 행동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행동방안별 이행 책임부서까지 명시되어 있다(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7).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한, 상하이시의 도시외교 행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대일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점차적으로 중국 대외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 IV.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상하이의 도시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중국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 지방정부의 수행하는 역할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앙정부는 대외사무,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체결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도시건설, 공안, 사법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데 국한된다(신중호 2017).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중국 헌법상 외교업무는 중앙에서 관리하며(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04), 지방정부의 대외교류활동은 중앙정부의 업무지시 및 지도를 받는다(신중호 2017). 이는 상하이시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도시외교 활동을 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와 밀접한 연계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반영하기 위해 각급 지방정부는 외사업무를 수행하는 외사관공실(外事办公室)을 두고 있으며, 해당 지방정부의 특성에 부합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외국지도자와의 대표단에 대한 접견업무를 수행한다(신중호 2017:71).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의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띤다. 첫 번째 유형은 전형적인 것으로, 우호자매도시 관계형성이며, 두 번째 유형은 국가발전전략과 조화되는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며, 세 번째 유형은 검색된 특정 국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마지막 유형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 국가와 중국지방정부 간의 초(超)국경 협력(예, 내몽골 자치구 외사관공실과 러시아·몽골처(俄蒙处), 윈난성(雲南省) 접경국가(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경 변경선 관련 정기점검 사례)이다(신중호 2017).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에 비추어 보면,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행할 것이며,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주로 우호자매도시 건설이 주된 형태일 것이며, 상하이의 경제수도 특성상 경제·통상 협력에 큰 관심을 쏟을 것이다. 만일 특정 국가와 마찰이 있을 때는

사회·문화 교류 증진에도 힘쓸 것이다. 상해는 접경도시는 아니지만,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 초(超)국경적인 협력인 경우에 중앙정부의 조력자로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다.

상하이시는 지난 약 50년 동안 양적·질적 측면에서 도시외교를 성장시켜왔으며, 중국의 대외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시초는 1973년 11월 30일 일본의 요코하마시와 우호도시 체결이었으며, 현재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상해외무판공실에 의하면, 2019년 11월 8일까지 상하이는 전 세계 66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수립하였다 <표3> 참조.

**표 3 상하이 자매결연 수립현황 (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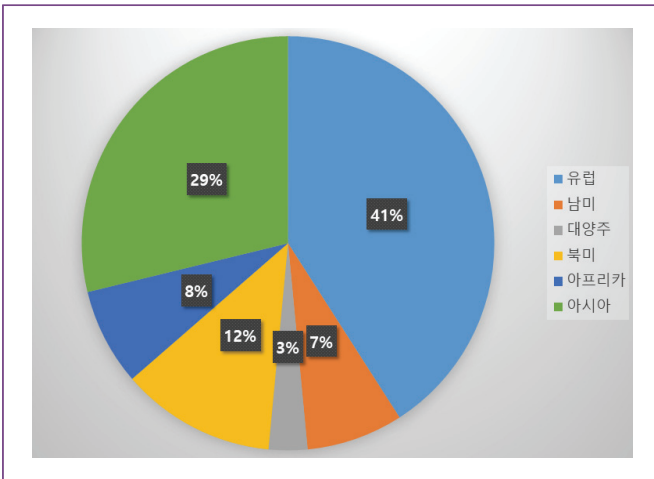
순번	도시	국가	대륙	체결날짜	순번	도시	국가	대륙	체결날짜
1	요코하마	일본	아시아	1973.11.30	34	로자리오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	1997.06.17
2	오사카시	일본	아시아	1974.04.18	35	에스포	핀란드	유럽	1998.09.04
3	밀란	이탈리아	유럽	1979.06.25	36	할리스코	멕시코	남아메리카	1998.11.18
4	로테르담	네덜란드	유럽	1979.11.23	37	리버풀	영국	유럽	1999.10.18
5	샌프란시스코	미국	북미	1980.01.28	38	마푸토	모잠비크	아프리카	1999.10.25
6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유럽	1980.06.18	39	치앙마이	태국	아시아	2000.04.02
7	오사카부	일본	아시아	1980.11.21	40	두바이	UAE	아시아	2000.05.30
8	함흥	북한	아시아	1982.06.18	41	콰줄루나탈	남아공	아프리카	2001.05.16
9	마닐라	필리핀	아시아	1983.06.15	42	과야퀼	에콰도르	남아메리카	2001.07.06
10	카라치	파키스탄	아시아	1984.02.15	43	발파라이소	칠레	남아메리카	2001.07.10
11	앤트워프	벨기에	유럽	1984.05.27	44	바르셀로나	스페인	유럽	2001.10.31
12	몬트리올	캐나다	북미	1985.05.14	45	오슬로	노르웨이	유럽	2001.11.10
13	피레우스	그리스	유럽	1985.06.24	46	콘스탄타	루마니아	유럽	2002.04.15
14	포모제	폴란드	유럽	1985.07.04	47	콜롬보	스리랑카	아시아	2003.08.11
15	시카고	미국	북미	1985.09.05	48	예테보리	스웨덴	유럽	2003.10.23
16	함부르크	독일	유럽	1986.05.29	49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유럽	2003.11.10

순번	도시	국가	대륙	채결날짜	순번	도시	국가	대륙	채결날짜
17	카사블랑카	모로코	아프리카	1986.09.08	50	중양덴마크	덴마크	유럽	2003.11.10
18	마르세이유	프랑스	유럽	1987.10.26	51	코크	아일랜드	유럽	2005.05.19
19	상파울로	브라질	남미	1988.07.07	52	동 자바	인도네시아	아시아	2006.08.30
20	상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유럽	1988.12.15	53	바젤 주	스위스	유럽	2007.11.19
21	퀸즐랜드	호주	오세아니아	1989.05.24	54	오베르뉴-론-알프스지역	프랑스	유럽	2008.05.21
22	이스탄불	터키	아시아	1989.10.23	55	프놈펜	캄보디아	아시아	2008.10.08
23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1992.05.15	56	런던	영국	유럽	2009.03.31
24	하이파	이스라엘	아시아	1993.06.21	57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유럽	2009.09.03
25	부산	한국	아시아	1993.08.24	58	퀘벡	캐나다	북아메리카	2011.09.02
26	호치민시	베트남	아시아	1994.05.14	59	부다페스트	헝가리	유럽	2013.08.28
27	포트빌라	바누아투	오세아니아	1994.06.08	60	मुंबай	인도	아시아	2014.09.18
28	더니든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1994.10.21	61	휴스턴	미국	북아메리카	2015.06.04
29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1994.12.15	62	소피아	불가리아	유럽	2016.06.02
30	포르투	포르투갈	유럽	1995.04.15	63	방콕	태국	아시아	2016.05.10
31	아덴	예멘	아시아	1995.09.14	64	벨그라드	세르비아	유럽	2018.05.21
32	반드후크	나미비아	아프리카	1995.11.01	65	리마	페루	남아메리카	2018.07.20
33	산티아고	쿠바	북아메리카	1996.08.28	66	민스크	벨라루스	유럽	2019.11.08

상하이의 자매결연 도시들은 유럽도시가 27개, 아시아도시 19개, 북미도시 8개, 남미·아프리카 각각 5개, 대양주 도시 2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상하이는 아시아나 북미 지역보다 유럽지역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상해의 자매도시는 상하이시의 선호와 관심사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하이의 국제우호도시는 대부분 해당국의 중요한 항구도시로 상공업도시 혹은 경제금융문화센터가 자리하여 상하이와 유사성이 많고, 양측 간의 협력기반과 폭넓은 협력분야가 존재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周士新2018). 상하이의 우호자매도시체결은 국가의 외교 주요원칙인 ‘실효성을

중요시하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우호관계를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며, 각 분야의 소통을 확장시키며 상하이의 현대적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周士新 2018). 시진핑 정부의 신(新)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완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럽 도시에 자매 결연을 추진할 것이고,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 그림 3 상하이의 자매결연도시 지역별 분포(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질적인 측면에서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중국도시외교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중국의 대외관계 및 전략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상하이를 필두로 한 중국의 도시외교는 급속한 발전을 보였으며,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환경개선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제공하였다(周士新 2018). 1996년 4월 25~26일 ‘상하이 5국’ 회담, 2001년 10월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10년 5월~10월에 개최된 상하이 엑스포(世博会), 2014년 5월 20일에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 제4차 정상회의가 대표적인 예이며 중국의 외교행보에도 큰 기여를 한 행사이다. 또한 상하이의 우호도시 체결은 중국의 대외관계에 중요한 이미지 구축의 역할에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周士新 2018; Sterling 2018).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명한 일대일로 전략의 평화적인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 (Xi 2015), 중국은 대륙 간의 연계성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영향력, 경제적인 유대관계, 동반자외교,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연성권력 전략의 적용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중국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시작하였다(Sterling 2018).

## V.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

지난 반세기 동안 상하이가 맺어온 우호자매도시결연의 일련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볼 수 있다.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과는 주로 경제 혹은 무역협력에서 잘 나타났고, 한계는 주로 상하이(중국 정부)와 우호자매도시 간 추구하는 원칙 혹은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때 잘 드러났다.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과는 양자 간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이 명확할 때 드러난다. 주목 해야 할 예시 사례는 바로 영국의 리버풀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다. 1999년 상하이와 리버풀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사례는 영국 특히 리버풀의 중국시장 진출 및 공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로 꼽힌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당시 영국관과 별도로 영국 도시 중 유일하게 리버풀 도시만의 관(Pavilion)을 개설 할 수 있게 해주었다(BBC 2010).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중국이 영국에게 실질적으로 투자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결국 상하이 내에서 리버풀의 존재감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Wu, Zhang and Wang 2016: 13). 2019년 로테르담과 상하이는 자매도시 결연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고, 양 도시간의 성취 한 것을 살펴보고 향후 관계를 넓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Rotterdam Partners 2019). 지난 40년간 양 도시는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양 도시 간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다(Rotterdam Partners 2019). 양국 간 무역량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854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네덜란드의 중국기업이 700개 이상의 지점을 설립해 1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다(Max Human Resource Management 2019). 향후 양자 관계는 전문지식의 지속적인 교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을 전망했다(Rotterdam Partners 2019). 상하이의 리버풀과 로테르담 사례는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잠정적으로 발전 할 것이다. 또한 상하이는 리버풀과 로테르담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우호자매 도시관계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결국 중국의 영국과 네덜란드의 유대관계가 심화 될 것을 암시하며, 향후 밀접한 관계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한계는 우호자매도시 혹은 중국이 서로의 원칙이나 가치를 훼손할 때 자매도시의 결연을 통해 나타난다. 주목해야 할 사례는 체코 프라하와 스웨덴의 예테보리이다. 상하이와 프라하의 우호자매도시관계 파기는 즈데넥 흐리브 시장이 2019년 10월 베이징과 자매도시관계를 파기하고 2020년 1월 13일 타이페이와 자매도시의 결연을 맺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 상하이 인민정부는 이에 홈페이지에 2020년 1월 24일 체코 프라하와 맺어왔던 우호자매도시관계의 파기를 선언하였다(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 2020). 이어 상하이 인민정부는 최근 프라하시장이 타이완 등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내정간섭 행위이자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엄중한 항의를 표명하였다(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 2020). 예테보리는 36년간 이어오던 상하이와 자매도시관계 파기의 발단은 중국태생의 스웨덴 서적상 구이민하이(古伊敏海)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출판한 서적상중 한 명 이었으며, 2015년 구이민하이(古伊敏海)는 중국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Timsit 2020). 이후 문인단체인 PEN Sweden은 표현의 자유를 공로로 구이민 하이에게 투홀스키상을 수여했고, 스웨덴의 중국대사관은 이어 구이민하이(古伊敏海)의 투홀스키상 수여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의사를 표명했다(Wong 2020). 스웨덴은 이어서 국내에 있는 모든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폐쇄하며 강경한 조치를 이어갔다(Wong 2020). 또한 몇몇 유럽국가와 유럽위원회는 중국이 코로나-19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 및 은폐 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Timsit 2020). 본 두 가지 사례는 중국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사례이며, 상하이와 중국의 지방정부가 바라는 도시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 VI. 결론 및 시사점

상하이이는 지난 두 세기 동안 가장 빨리 발전한 도시이며,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인해온 중요한 도시이다. 중국 경제·금융의 중심지이며,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국가주석을 배출한 중국 정치의 중심지로 받돋움하였다. 상하이의 급속 성장 저력은 경제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리적인 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중요한 대외정책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정부는 상하이를 통하여 중국의 미래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상하이이는 중국 내 금융 중심지를 넘어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받돋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글로벌 혁신의 핵심거점으로 받돋움하기 위해 ‘과학기술중심도시’로서의 상하이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이다. 향후 상하이 도시외교는 일대일로의 전략적인 목표에 의거해 추진 될 것이다. 향후 우호자매도시 수립과 우호도시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중국 포위전략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거점도시가 상하이의 향후 우호자매도시가 될 것이며,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적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에 참가시키기 위한 파트너 모집으로서 우호자매도시 수립에 집중할 것이며, 상하이의 금융과 시장의 성장을 통해 중국 상품판매와 외자 유치의 도움이 되는 도시와의 관계에 집중 할 것이고,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외교를 진행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력은 중국을 세계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 하지만 중국 주변국가의 중국선호 비율이 낮으며 영토분쟁이 있는 베트남, 일본, 필리핀과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3). 중국과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결국 일대일로의 발전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일대일로 전략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세계가 다변화와 다극화(multi-polarized)현상을 겪게 되면서 연성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고, 중국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Sterling 2018).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건설은 중국의 주변국들이나 연선국가들과의 우호관계와 평화적 공존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중국의 연성권력은 외교관계를 깊게 해주고,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해줄 것이다(Sterling 2018). 중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중국이나 상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미지는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의 도시외교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식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찾고, 인식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덩샤오핑이 주창한 중국 외교정책의 기초인 도광양희(韜光養晦)(어둠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감추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부족한 부분을 갈고 닦는 것을 의미)를 되새기며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제껏 다져왔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부족한 대외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중국과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키우고, 지금의 경쟁 체제를 넘어서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의 문화를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를 가라는 말이 있듯이 상하이의 도시외교가 중국의 대외정책의 미래가 되길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결과를 통하여 제주도의 도시외교에 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제주도의 이미지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 있는지, 세계시민들이 이러한 제주도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05년 1월 27일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았고, 평화 실천을 위한 17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지 구축과 관련 이미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평화구축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구상하겠다고 계획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이미지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는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전략 커뮤니케이션 정책이나 홍보정책이 보완되어서 이러한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의 도시외교의 성패는 국제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섬 관련 자료를 보면 주로 남북협력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소통 계획이나 사례는 미흡한 편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도가 국제화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추진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좋겠지만, 전 세계에 평화추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지구촌 시민들에게 잘 전달 되어져야 하고 또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평화의 섬의 비전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아무쪼록 제주도의 도시외교가 대한민국의 도시외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소망한다.

## 참고문헌

- 신성원. 2015.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외교안보연구소, 2014-01 정책연구과제,”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3&pblctDtaSn=12250&koreanEngSe=KOR> (검색일 2020.10.05.).
- 신종호. 2017. “서울정책아카이브, 계간 ‘세계와도시’ 1. 세계무대에 뛰어난 중국의 도시외교”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7356> (검색일: 2020. 8. 10.)
- 조영삼·최낙섭·김양평·김단비. 2016. “중국일대일로 전략의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783,”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53054](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53054) (검색일  
 2020.10.05.).
- 조형진. 2019. “한국과 중국의 도시외교: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인천과 웨이  
 하이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28권 2호 여름, 29-56.
-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7. “상하이시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2017.11.6.  
[http://overseas.mofa.go.kr/cn-shanghai-ko/brd/m\\_499/view.do?seq=13366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http://overseas.mofa.go.kr/cn-shanghai-ko/brd/m_499/view.do?seq=13366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검색일 2020.10.05.).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3. “중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해외여론조사 결과” 2013.12.11.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502/view.do?seq=10362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502/view.do?seq=10362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검색일 2020.10.05.).
- 최윤정. 2020. 일대일로 인도의 선택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diverseasia.snu.ac.kr/?p=3026> (검색일 2020.10.18.)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지식재산동향, 중국, 중국 경제시보, 상하이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대한 견해 표명” 발행일 2014-10-24,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4098](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4098) (검색일 2020.10.04.)

- 홍성범. 2016. “서울정책아카이브.계간 ‘세계와도시’ 1. 글로벌 혁신의 핵심거점으로 발돋움하는 중국 상하이.” <https://bit.ly/2SuR4Et> (검색일 2020.10.06.)
- Acuto, Michele, Mika Morisette, Dan Chan, Benjamin Leffel. (2016) “‘City Diplomacy’ and Twinning: Lessons from the UK, China and Globall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45780/gs-16-13-future-of-cities-diplomacy-uk-china-twinning.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45780/gs-16-13-future-of-cities-diplomacy-uk-china-twinning.pdf) (검색일 2020.10.18.)
- Balfour, Frederik. 2007. “Shanghai Rising.” *Bloomberg* (February 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07-02-08/shanghai-risingbusiness-week-business-news-stock-market-and-financial-advice> (검색일 2020.10.04.)
- Baruah, Barshana. 2018 “A Road Map for South Asia” Carnegie India, <https://carnegieindia.org/2018/08/21/india-s-answer-to-belt-and-road-road-map-for-south-asia-pub-77071> (검색일 2020.10.18.)
- BBC. 2010. Liverpool pins hopes on Shanghai World Expo business. BBC Liverpool 14th May 2010. [http://news.bbc.co.uk/local/liverpool/hi/people\\_and\\_places/newsid\\_8680000/8680572.stm](http://news.bbc.co.uk/local/liverpool/hi/people_and_places/newsid_8680000/8680572.stm) (검색일 2020.10.04.)
- CEIC Data, China Population: Urban: Shanghai <https://www.ceicdata.com/en/china/population/population-urban-shanghai> (검색일 2020.10.22.)
- CEIC Data, China CN: GDP: Shanghai <https://www.ceicdata.com/en/china/gross-domestic-product-prefecture-level-city/cn-gdp-shanghai> (검색일 2020.10.22.)
- Chen, Xiangmin and Anthony Orum. 2009. “Conclusion: Shanghai as a New Global(izing) city: Lessons for and from Shanghai” in *Shanghai Rising: State Power and Local Transformations in a Global Megacity*. edited by Xiangming Chen and Zenhua Zhou,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37-250.
- Cheng, Linsun. 2012. “Globalization and Shanghai Model: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Global Studies*, 4(1): 59-80.

- Cheng, Yu-K'uei. 1956. *Foreign trade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China*.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Washington.
- 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8. Unprecedented Outreach, Unparalleled Outcomes – India’s Diplomatic Journey: 2014-2018.  
<http://www.mea.gov.in/images/pdf/Final-CTB-Book-English-28052018.pdf>  
 (검색일 2020.10.18.).
- Max Human Resource Management. 2019. 40th Anniversary Shanghai-Rotterdam,  
<https://maxhrm.nl/shanghai-rotterdam-sister-city-40th-anniversary/> (검색일: 2020.10.15.).
- Rotterdam Partners, Shanghai-Rotterdam 40 years sister city relationship,  
<https://en.rotterdampartners.nl/invest-rotterdam/international-trade/trade-mission-china-11-14-june/> (검색일: 2020.10.15.).
- Sterling, Dahlia. 2018. “A New Era in Cultural Diplomacy: Promoting the Image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Asia.”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6, 102-116. <https://doi.org/10.4236/jss.2018.62010>
- Timsit, Annabelle. 2020. Quartz “The Surprisingly Vital Role Sister Cities Play in Chinese Diplomacy”,  
<https://qz.com/1846303/sister-cities-play-surprisingly-vital-role-in-eu-chinese-relations/> (검색일: 2020.10.15.).
- Virtual Shanghai, Maps Database <https://www.virtualshanghai.net/maps/collection>  
 (검색일: 2020.10.15.).
- Wong, Rachel. 2020. Hong Kong Free Press. “Gothenburg axes twin city agreement with Shanghai as Sweden closes all Confucius Institutes”  
<https://hongkongfp.com/2020/04/24/gothenburg-axes-twin-city-agreement-with-shanghai-as-sweden-closes-all-confucius-institutes/> (검색일: 2020.10.15.).
- Wu, Fulong, Fangzhu Zhang and Zheng Wang. 2016. “Twinning and Contact between British and Chinese cities” Future of Cities, Working Paper,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545779/gs-16-14-future-of-cities-twinning-contact-britain-china.pdf (검색일: 2020.10.15.)

Wuthnow, John “Chinese Perspectives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trategic Rationales, Risks and Implication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2,  
[https://inss.ndu.edu/Portals/68/Documents/stratperspective/china/China Perspectives-12.pdf](https://inss.ndu.edu/Portals/68/Documents/stratperspective/china/China%20Perspectives-12.pdf) (검색일 2020.10.17)

Xi, Jinping. 2015. Full Text of Chinese President Speech at the Boao Forum for Asia. Towards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nd a New Future for Asia. Keynote Speech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15.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5-03/29/c\\_134106145.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15-03/29/c_134106145.htm)

洪葭管. 1989. 『近代上海金融市场』, 上海:上海人民出版社

洪葭管. 1990. 『在金融史园地里漫步』, 北京:中国金融出版社.

国文库. 2017. 『一带一路英文怎么翻译\_一带一路英文怎么说\_一带一路官方英译』  
<http://www.guowenku.com/qita/201705/38042.html> (검색일 2020.10.18)

李小林. 2016. 编, 『城市外交(理论与实践)』,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罗志如. 1932. 『统计表中之上海』, 南京: 商務印書館.

千家驹. 1983. 编 『旧中国公债史资料』,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http://wsb.sh.gov.cn/node550/index.html> (검색일: 2020.10.06.)

上海市人民政府外事办, 2020. 公室关, 于上海市解除与 捷克布拉格市友城关 系的声 明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9/nw12344/u26aw63349.html?from=timeline&isappinstalled=0> (검색일: 2020. 10.06)

张仲礼. 1991. 编, 『近代上海城市研究』, 上海:上海人民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04. 中华人民共和国宪法. 国务院公报. 2004年第13号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 (검색일: 2020.10.06.)

邹东涛. 2008. 『中国经济发展和体制改革报告No.1：中国改革开放30年（1978～2008）』,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周士新. 2018. “上海城市外交的全球布局与特色定位” 上海国际问题研究院  
<http://www.siiis.org.cn/Research/Info/4539> (검색일: 2020.10.06.)

## 저자약력

---

### 정세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 유럽지역학 박사. 주 연구분야는 국제지역학(유럽·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유럽-아시아 상호인식)와 담론분석(비판담론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이다. 관련 주요 논문으로 “Building the Pillars of the EU-Sou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Asia-Europe Journal, 2019)이 있고, 국제저명 학술저서에 기고한 북챕터(book chapter)로 “Behind the Scenes: EU Images and Perceptions in South Korea” (Palgrave-MacMillan 2019)와 “EU Perceptions from Korean YouTube videos before and after the Brexit referendum: A Semantic Network Approach” (Routledge 2020)가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

---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다자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도시외교의 미래, 상하이

